

조절부합이 디자인과 도덕적 상황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ulatory fit on product design and morality evaluation

정은경** · 이지은** · 손영우***†

Eun-Kyung Chung** · Ji-Eun Lee** · Young-Woo Sohn***†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bstract

Regulatory fit occurs when the way people act accords with their goal orientation the activity. When there is regulatory fit, to pursue a goal feels right and also increases the value of what a person is doing-value from fit. Value from fit can be transferred to other value experiences such as monetary valu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at regulatory fit occurs when the domain in which a decision or an evaluation is made sustains the decision maker's chronic goal orientation, and this regulatory fit affects the value that he or she assigns to the object.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ith chronic promotion or prevention focus evaluated their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on 14 design products includ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valences. Results showed that evaluations on the product design (promotion domain) were more extreme under promotion than prevention, $F(1, 95)=4.87, p < .05$. In Experiment 2 with 16 moral scenarios including prescriptive and proscriptive morality, prevention-focus individuals evaluated immoral behaviors as more immoral than promotion-focus individuals only in the proscriptive scenarios (prevention domain), $F(1, 139)=4.14, p < .05$. In prescriptive scenarios, regulatory fit effect was not found. Findings from both experiments suggest that regulatory fit occurs when the domain of an issue that people engage in sustains their goal orientation.

Keywords : regulatory focus, regulatory fit, product design evaluation, moral evaluation

요약

조절부합은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평가 및 판단 전략이 지닌 조절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및 의사결정의 영역이 유발하는 조절초점과 개인의 조절초점간의 부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향상적 영역으로는 제품 디자인 평가를, 예방적 영역으로는 도덕적 평가를 사용하여 조절부합 효과를 알아보았다. 향상초점과 관련된 영역인 미적 제품에 대한 평가 과제를 사용한 실험 1에서는 향상초점인 사람들이 예방초점인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1, 95)=4.87, p < .05$. 반면 금지와 규범적인 도덕 상황을 사용한 실험 2에서는 금지적 상황에서만 예방초점인 사람들이 향상초점인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F(1, 139)=4.14, p < .05$. 반면 규범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절부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가 및 의사결정 영역과 관련해서도 조절부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조절초점, 조절부합, 제품 디자인 평가, 도덕적 평가

* 이 논문은 BK21사업(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손영우(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ysohn@yonsei.ac.kr

TEL : 02-2123-2444

FAX : 02-2123-4919

1. 서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에 대해 평가를 한다. 평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해 개인 간의 다툼, 혹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인 평가 기준 혹은 대상에 대한 감성적 호/불호 등 의식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가 및 판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평가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평가 및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주는 정서적 정보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유용성 정보이고, 두 번째는 평가 및 의사결정의 과정과 상황의 특성에서 오는 맥락적인 정보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내부적 요소로 의사결정자의 성격이나 기질, 사고 스타일, 동기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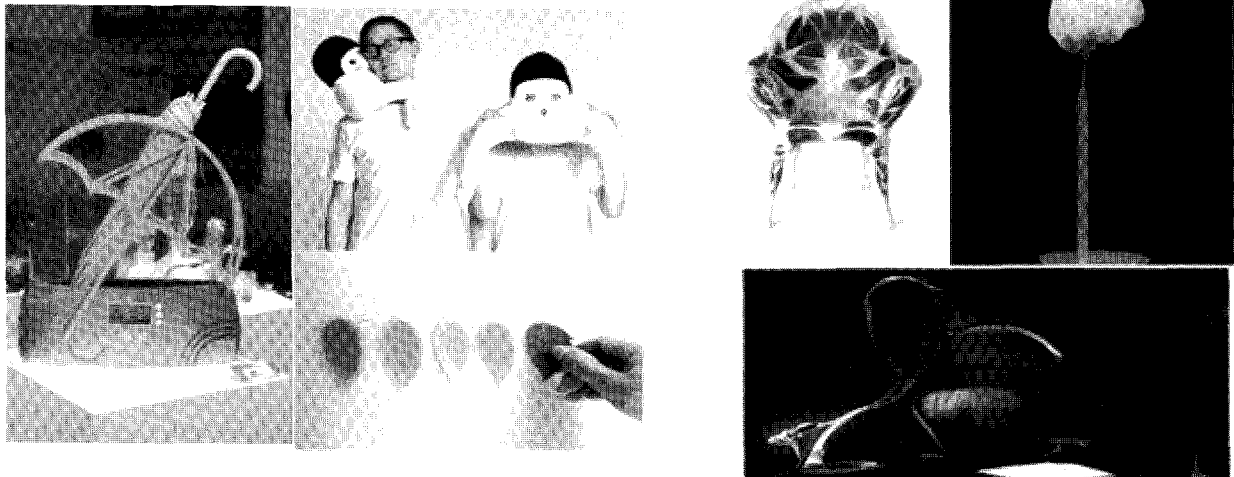
특히 세 번째 요소 중 하나인 동기가 평가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조절초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iggins(1997)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원칙인 쾌락의 원칙(hedonic principle), 즉 ‘사람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은 피한다’라는 원칙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접근/회피 행동의 또 다른 기제로 동기 체계의 일종인 조절초점을 제시하였다. 조절초점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접근(approach)하는 행동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유발하는 동기와 회피를 유발하는 동기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Higgins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향상(promotion)과 예방(prevention)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조절 목표가 존재한다. 향상초점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양육의 욕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를 추구하며,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의 유무에 민감하다. 또한 향상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성공과 획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한다.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당위적 자기(ought self)를 추구하며,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유무에 민감하다. 또한 예방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손실이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조절초점은 조절부합(regulatory fit)이라는 현상을 통해 평가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절부합이란 평가자 개인의 조절초점과 맥락적인 정보가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옳다고 느껴지는 (“feeling right”) 효과를 유발한다(Higgins et al., 2003). 조절부합이 일어나면 평가자는 평가 및 의사결정의 대상에 대한 가치—긍정적인 가치이든 부정적인 가치이든—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된다. 즉 개인과 맥락 간에 일종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대상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더 크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자신의 조절초점과 부합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으며(Avnet & Higgins, 2003), 조절부합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같은 머그컵에 대해 40%나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다(Higgins et al., 2003).

기존의 조절부합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평가전략(향상초점은 열망전략, 예방초점은 경계전략)과 개인의 특성으로써의 조절초점간의 부합에 집중되어 있다. 즉 평가 전략이라는 방법적인 측면과 개인의 특성간의 조절부합이다. 그러나 개인의 조절초점과 부합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평가 전략만은 아니며 평가 영역의 종류 또한 조절부합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Rettinger와 Hastie(2001)는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할 때 어려운 가족을 도와야 할 책임에 대한 문제는 예방초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였고 ‘국경없는 의사회’를 돕거나 후진국에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기에 대한 문제는 향상초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Klug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판단 영역에서 조절초점을 제공하기 위해 예방관련 시나리오로 보험, 독감백신, 신체유연성 손실 내용을 사용하였고 향상 관련 시나리오로 아이디어, 취미 개발, 데이트 내용을 사용하여 평가 및 판단의 영역이 향상초점과 관련된 영역과 예방초점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인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른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되며, 이는 결정의 전략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Beach, 1990; Pennington & Hastie, 1993).

그렇다면 실제로 평가 영역과 개인 간에서도 조절부합이 발생하고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 영역과 개인의 조절초점간의 조절부합이 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평가 영역 중 자아실현 영역은 향상초점과, 안전영역은 예방초점과 매우 관련이 높다(Kluger et



긍정적 디자인

부정적 디자인

그림 1. 실험 1에서 사용된 실험자극의 예

al.,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실현 영역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향이나 정체성 등을 표현하는 분야인 디자인 영역을, 안전영역으로는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 법이나 규범, 윤리 등과 같은 도덕적 영역을 선정하였다. 평가 영역과 개인의 조절초점 간 조절부합 효과가 나타난다면, 향상초점인 사람들은 예방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디자인 평가영역에서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도덕적 평가영역에서는 예방초점인 사람들이 향상초점인 사람들에 비해 옳은 것은 더 도덕적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조절부합이 일어나는 평가 영역에서 더 극단적인 평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실험 1: 디자인 평가

실험 1은 향상초점 영역인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조절부합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개인의 심미적인 취향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명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주는 제품 디자인과 분명하게 부정적인 정서를 주는 제품 디자인을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였다.

2.1. 실험방법

2.1.1.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97명의 학부생들(남성 45명, 여성 52명, 평균연령 22세)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컴퓨터로 제시된 실험자극을 보면서 각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평가가 끝난 후 조절초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1.2. 실험 도구 및 자극

디자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자극을 사용하였다. 우선 사전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재현되어 전달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한 제품들 32개를 골라 이 제품들이 얼마나 부정적/긍정적인 느낌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학부 및 대학원생 22명을 대상으로 32개 제품이 주는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9점 척도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에서 우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은 제품은 모두 제외하고 분명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정 디자인 제품 중 상위 7개 제품과 분명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긍정 디자인 제품 중 상위 7개 제품을 선정하여 최종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표 1. 집단별 조절초점 점수와 집단에 따른 제품 선호도와 구매의사에 대한 기술통계치

	조절초점 점수		제품 선호도		제품구매의사	
	항상점수	예방점수	긍정적인 정보 M (SD)	부정적인 정보 M (SD)	긍정적인 정보 M (SD)	부정적인 정보 M (SD)
항상초점	5.24(.66)	4.14(.96)	7.53 (1.81)	4.78 (1.89)	6.68 (1.77)	4.38 (1.75)
예방초점	4.56(.74)	5.32(.61)	6.88 (1.61)	5.38 (1.58)	6.15 (1.74)	4.94 (1.66)
t값	4.63***	-7.31***	1.82**	-1.66**	1.44*	-1.87**

* $p < .10$, ** $p < .05$, *** $p < .001$

실험 자극은 E-prime(Psychological Software Tools, Inc)을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의 만성적인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iggins 등(2001)이 개발한 조절초점 설문지(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s)를 사용하였다. 조절초점 설문지는 총 11문항으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였다. 총 11문항 중 6문항은 항상초점 문항(2문항은 역코딩)이며 5문항은 예방초점 문항(4문항은 역코딩)으로 각 조절초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산하여 항상초점점수와 예방초점점수를 얻었다. 전체점수 중 항상초점 문항과 예방초점 문항을 비교하여 더 큰 점수를 얻은 쪽으로 집단이 분류되었다(항상초점집단 63명, 예방초점집단 34명). 본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는 Higgins 등(2001)의 연구에서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7로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2.1.3.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각각의 실험자극에 대해 선호도와 구매의사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가 끝난 후에는 인구통계학적인 문항과 조절초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실험자극은 의사무선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선호도는 “나는 이 제품에 호감을 느낀다”, 구매의사는 “나는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선호도와 구매의사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5(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 사이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1점에서 11점으로 환산되어 채점되었다.

2.2. 결과

조절초점 집단에 따른 제품 선호도와 구매의사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만성적 조절초점이 제품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우선 선호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디자인 제품을 부정적인 디자인 제품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였다, $F(1, 95) = 56.04, p < .001$. 조절초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제품의 정서적 정보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95) = 4.87, p < .05$ (그림 2). 즉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이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호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디자인 제품보다 긍정적인 디자인 제품에 대해 유의미하게 높은 구매의사를 보였다, $F(1, 95) = 41.76, p < .001$. 조절초점의 주효과는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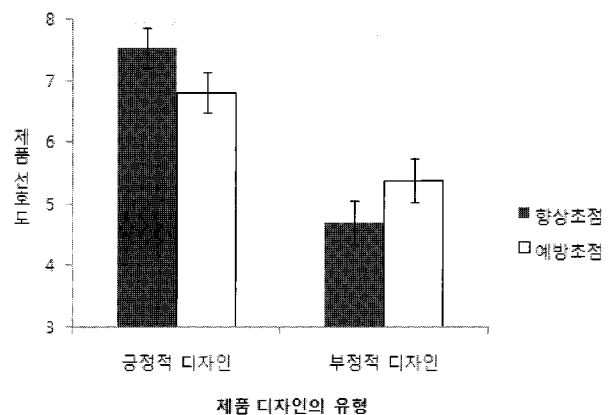


그림 2. 조절초점과 제품의 정서적 정보에 따른 제품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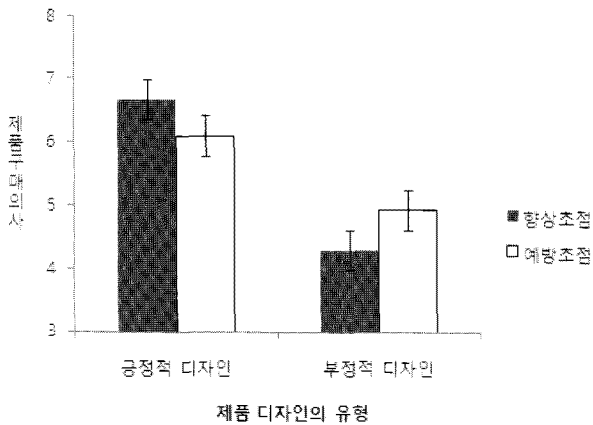


그림 3. 조절초점과 제품의 정서적 정보에 따른 제품 구매의사

구매의사에 대한 제품의 정서적 정보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95) = 4.06, p < .05$ (그림 3). 즉 향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구매의사를, 부정적인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낮은 구매의사를 보였다.

3. 실험 2: 도덕적 평가

실험 2는 예방초점 영역인 도덕적 평가 영역에서 조절부합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최근 연구는 도덕적 영역은 다시 예방초점과 관련된 금지적 도덕영역(proscriptive morality)과 향상초점과 관련된 규범적 도덕영역(prescriptive morality)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Janoff-Bulman, Sheikh, & Hepp,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영역을 금지적 도덕영역과 규범적 도덕영역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3.1. 실험방법

3.1.1.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 143명의 학부생들(남성 68명, 여성 75명, 평균연령 22세)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컴퓨터로 제시된 실험자극을 보면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으며 평가가 끝난 후 조절초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1.2. 실험 도구 및 자극

도덕적 시나리오는 Janoff-Bulman, Sheikh, 및 Hepp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도덕적 시나리오(금지적 도덕 시나리오 8개, 규범적 도덕 시나리오 8개)를 구성하였으며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금지적 시나리오: “S씨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에게 정치계로 입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현직 의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라이벌을 지지하는 지역 유지들을 만나기로 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중요한 표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S씨를 도와주고 있는 같은 정당 동료는 뇌물을 준비하여 지역 유지들을 S씨 편으로 돌리라고 제안합니다. 뇌물을 준다면 지역 유지들의 표심을 사서 S씨는 상당수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씨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뇌물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규범적 시나리오: “J씨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의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관련 센터를 방문했을 때 센터 직원은 입양을 기다리는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가 된 경우가 많고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거의 없어 양부모조차 만나기 어렵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센터 직원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기쁨과 보람도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J씨는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아내 는 J씨의 뜻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J씨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의 만성적인 조절초점은 실험 1과 동일한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향상초점집단이 86명, 예방초점집단이 57명으로 분류되었다. 본 실험에서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는 .66으로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실험자극은 E-prime을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3.1.3. 실험 절차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조절초점의 효과를 모두 알아보기 위해 같은 시나리오를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한 경우와 도

덕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을 한 경우 두 가지(도덕적 결론유형)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무선으로 2가지 조건에 할당되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시나리오가 ‘행동함’으로 결론지어지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위의 시나리오 예에서 “S씨는 뇌물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와 “J씨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로 제시되는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시나리오가 ‘행동하지 않음’으로 결론지어지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위의 시나리오 예에서 “S씨는 뇌물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와 “J씨는 장애아동을 입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로 제시되는 조건이다.

각 조건의 참가자들은 금지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가 의사무선방식으로 제시되는 실험자극에 대해 평가하였다. Nichos와 Mallon(2006)의 연구에 따라 각 시나리오에 대해 도덕성과 행동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도덕성은 “S씨의 결정은 도덕적입니까?”, 행동적합성은 “S씨의 결정은 적절한 것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인 문항과 조절초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2. 결과

조절초점 집단에 따른 도덕적 시나리오 평가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만성적 조절초점이 제품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도덕성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금지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모두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한 시나리오를 그렇지 않은 결정을 한 시나리오보다 유의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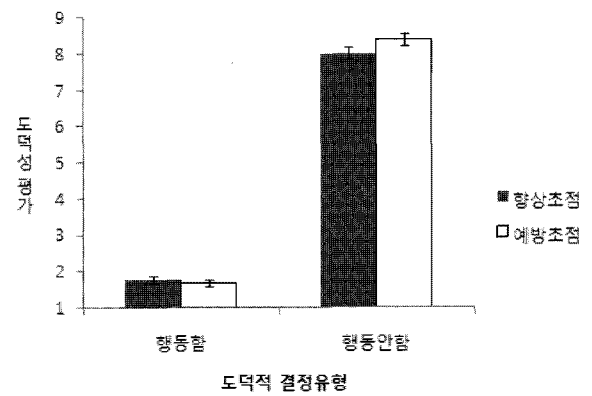


그림 4. 조절초점과 도덕적 결정유형에 따른 도덕성 평가 (금지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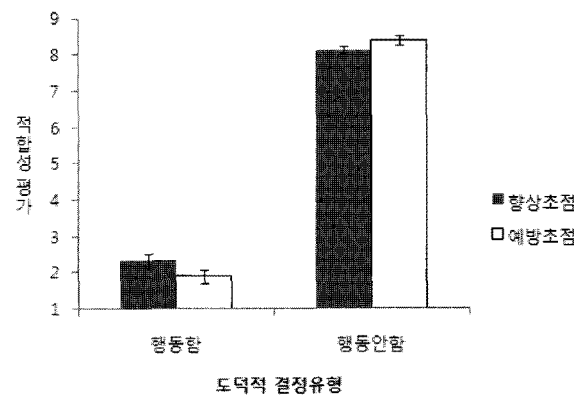


그림 5. 조절초점과 도덕적 결정유형에 따른 행동적합성 평가 (금지시나리오)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F_s > 350, p < .001$. 금지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모두에서 조절초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금지적 시나리오에서는 조절초점과 도덕적 결론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F(1, 139) = 4.14, p < .05$, 금지적 시나리오에서는 예방초점인 사람들이 향상초점인 사

표 2. 집단별 조절초점 점수와 집단에 따른 도덕적 시나리오 평가에 대한 기술통계치

	조절초점 점수			금지적 도덕상황		규범적 도덕상황	
				행동함 M (SD)	행동하지 않음 M (SD)	행동함 M (SD)	행동하지 않음 M (SD)
향상초점	향상점수	5.17(.77)	도덕성	1.77(.57)	8.00(.91)	7.55(1.08)	4.22(.96)
	예방점수	4.34(.80)	행동적합성	2.33(1.02)	8.12(.69)	6.12(1.13)	4.70(1.06)
예방초점	향상점수	3.91(.95)	도덕성	1.67(.64)	8.38(.59)	7.31(1.09)	4.24(.74)
	예방점수	5.35(.72)	행동적합성	1.95(.96)	8.38(.69)	6.33(1.05)	4.76(.85)
t값	향상점수	7.60***	도덕성	0.73	-1.99**	0.90	-0.07
	예방점수	-11.70***	행동적합성	1.59*	-1.47*	0.42	-0.27

* $p < .10$, ** $p < .05$, *** $p < .001$

람들보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그림 4). 그러나 규범적 시나리오에서는 조절초점과 도덕적 결론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적합성 평가의 분석결과도 도덕성평가 결과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역시 금지적 시나리오에서만 조절초점과 도덕적 결론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F(1, 139) = 4.56, p < .05$, 금지적 시나리오에서는 예방초점인 사람들이 항상초점인 사람들보다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더 적절한 행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더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하였다(그림 5).

4. 논의

본 연구는 조절부합 효과가 개인의 특성과 평가 영역간의 조절부합이 일어날 때도 나타나는지를 제품 디자인과 도덕적 평가 영역을 통해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조절초점과 부합하는 평가영역에서 더 극단적인 평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항상초점의 사람들은 항상적 평가영역인 제품 디자인을 평가할 때 예방초점의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예방적 평가영역인 금지적 도덕 상황을 평가할 때 항상초점의 사람들보다 비도덕적인 상황을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Pham과 Avnet(2009)은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정서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을 평가할 때 더 극단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여 항상초점의 사람들의 극단적 평가 성향이 일반적 성향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Pham과 Avnet이 실험에서 사용한 평가 영역이 TV 드라마 인물 평가나 제품평가, 데이트 상대 평가 등과 같이 항상초점과 좀 더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항상초점의 사람들에게만 조절부합이 일어나는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금지적 도덕 평가에서는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평가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항상초점의 사람들보다 정서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어도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언제나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의 영역에서 평가를 할 때 실제로 정서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정서 휴리스틱의 구체적 특징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시나리오 중 이상(ideal) 및 자아실현 등을 추구하는 항상초점적인 성향을 지닌 규범적 시나리오에서는 금지적 시나리오와는 달리 예방초점과 항상초점 사람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규범적 도덕 상황이 유발하는 조절동기 유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규범적 도덕 상황은 도덕성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는 예방초점 영역에 해당하지만 ‘규범적’이라는 세부적 내용에서는 항상초점이 촉발되므로 조절초점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성이 함의하고 있는 ‘의무(ought)’의 당위성이 규범적 도덕 상황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다. 규범적 시나리오에서 극단적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시나리오 내용이 도덕적인 결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입양하기의 경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아내가 동의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양육의 많은 부분을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이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도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규범적 시나리오 상황은 관련자들의 입장에 따라 비슷한 가치를 지닌 의무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다중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금지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은 성격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Janoff-Bulman, Sheikh, 및 Hepp(2009)가 제시한 것처럼 도덕적 영역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조절초점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조절부합 현상이 선택전략 뿐 아니라 평

1) 정서 휴리스틱(affect heuristics)이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정서적 정보를 진단적 정보로 여겨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Yeung & Wyer, 2004). 조절부합 또한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보 이외에 “feeling right”라는 정서적인 정보를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서 휴리스틱한 평가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영역과 개인 특성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향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 사람들보다 정서적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라 영역특정적인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영역과 개인특성 간의 조절부합 현상만을 밝힌 것이므로 그 기저에 있는 작용기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vnet, T., & Higgins, E. T. (2003). Locomotion, assessment, and regulatory fit: Value transfer from "how" to "wha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525-530.
- Beach, L. R. (1990). *Image theory: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ontexts*. Chichester: Wiley.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23.
- Higgins, E. T., Idson, C. L., Freitas, A. L., Spiegel, S., & Molden, D. C. (2003). Transfer of value from f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40-1153.
- Janoff-Bulman R., Sheikh S., & Hepp S. (2009). Proscriptive versus prescriptive morality: two faces of moral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521-37.
- Kluger, A. N., Stephan, E., Ganzach, Y., & Hershkovitz, M. (2004).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the shape of probability-weighting function: Evidence from a cross-modality matching metho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5*, 20-39.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A theory of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In G. Klein, J. Orasanu, R. Calderwood, & C. E. Zsombok (Eds.), *Decision making in action: Models and methods*. Norwood, NJ: Ablex.
- Pham, M. T., & Avnet, T. (2009). Contingent Reliance on the Affect Heuristic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2), 267-278.
- Rettinger, D. A., & Hastie, R. (2001). Content Effects o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5*, 336-359.
- Yeung, C. W. M., & Wyer, R. S. (2004). Affect, appraisal, and consumer judg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 412-424.

원고접수 : 10.09.08

수정접수 : 10.10.29

게재확정 : 10.12.06